

2018년 8월 4일 "(참된 공동체 1)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빌 1:27~30)

<도입>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는 성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하신 요 13:35의 말씀은 신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어떤 진리의 중심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를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 빌립보 교회의 두 문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컸습니다(4:1). 그들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컸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1:5, 4:15). 그런데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 위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도덕적, 지성적인 것에 뜻을 두며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고난이 없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서(1:12~26) 이런 것은 오히려 복음을 지키는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2) 공동체의 갈등/분열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알력을 겪기 마련입니다. 어디서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1) 1:27-28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2) 29 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특권)을 받으라'

-> 이 해결책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와 그 의도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안다면 마땅한 것입니다.

(1)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중요한 하나됨의 속성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인간들 사이에는 거대한 연대성을 이루어 서로 연결/교통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하나됨의 추구는 획일성(uniformity)과 맹목적 순응(conformity)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

- 군대 문화 -> 똑 같은 방식, 옷, 조건 아래 적에 대한 승리의 목적
- 독재 -> 예: 히틀러나 스탈린 체제. 점령과 장악의 목적
- 이념주의 -> 공산주의 -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
- 도덕주의 -> 금기와 강령이 지배 - 엄격한 유교문화, 바리새인 정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상대를 수용 또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추구하는 참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27 절 '한 정신, 한 마음'의 의미는 세상이 창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음과 밀착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도의 구원은 고난의 십자가로 가능해졌으므로 고난은 삶에 필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채찍과 질병을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딤후 3:12, 히 13:13 참고).

그러면 믿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섬기려 할 때 나의 속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진정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도우려고 할 때 오해나 미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때 믿음의 성도는 갈등과 충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아의 포기를 기꺼이 배우고 섬김과 희생으로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섬김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의 일꾼들의 수고로 공동체는 활력과 평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통한 축복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생명의 열매가 피어나는 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삶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맺음>

획일성과 맹목적 순응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본질을 알면 무엇이 참 하나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취해야 할 삶과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만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과 고난의 유익 안에서 진정으로 교회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세상적인 하나됨(위의 글에서 제시한)과 복음이 추구하는 하나됨의 유사성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2.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의 의미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려고 애쓸 때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최근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의 경우가 있었다면 말씀해봅시다. 그 결과 내게 유익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실까요?
3.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위해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